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권현주 · 남영희[†] · 천의영
수원여자대학교 간호보건학부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al Support Types of Students in the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Hyun-Joo Kweon · Young-Hee Nam[†] · Eui-Young Cheon
Department of Nursing Health, Suwon Women's College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to verify the correlation of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al support types of health administration major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380 students with major in the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from 2 universities and 2 colleges located in Incheon city, Gyeonggi province, and Chungcheo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 to 20, 2008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s: The study question are following : Social support type was sorted into three groups. Types of social support were classified high-support type, low-professor type, low-support type. Major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in the high-support type.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type and major satisfaction was the sequence correlation, low-professor type and low-support type were the reverse correlation.

Conclusions: In conclusion, Students can improve of major satisfaction through study group activities, systemic learning and career counseling. Professors and students are improve solidarity through open communication methods.

Key words: Health administration major student, Major satisfaction, Social support

접 수 일 : 2012년 4월 25일, 수 정 일: 2012년 7월 4일, 채 택 일: 2012년 7월 25일

[†] 교신저자 : 남영희 (441-748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여대길 62)

Tel: 031-290-8138, 010-5204-3132, Fax: 031-290-8142, E-mail: salubia@swc.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사회적 지지원(social support)이나 지지망(social network)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개인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력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여 정서적 격려, 충고, 정보, 구체적 원조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데(조일휘 외, 2008) 이것이 곧 사회적 지지이다. 지원은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지원으로 부모, 형제자매, 친지, 친구, 선생, 소속된 집단, 사회, 매스 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은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공분야의 다양성 때문에 세부전공 선택의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때, 교수나 선배 등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확신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전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지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좌절을 극복하여 문제해결 및 도전을 받아들이는 추진력이 된다(한수현, 2003).

부모와 친구의 지지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지지망에 중요한 사회 환경적 요인이 되며(박헌일과 김기원, 2001; Brissette et al, 2002; 이선영, 2004; 서미선, 2006; 이경선, 2009),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정도를 알아보는 데 매우 주목해야 할 요건이 된다(Lent et al, 2000). 대학생생활에서 사회 환경적 지지망은 부모나 형제, 친구, 교수 등의 관계형성에서 이루어지고, 정서적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한다. 그러므

로 보건행정전공 학생들의 주요 사회 환경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부모, 친구, 교수의 사회적 지지정도를 살펴보고,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에 관련된 연구는 고등학생 및 청소년(Barrera, 1996; 노미순, 1999; 장연정, 2002; 노혜련 등, 2005; 진은아, 2007; Chapman et al, 2008)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왔고, 대학생(박헌일과 김기원, 2001; Brissette et al, 2002; Clifton et al, 2004; Heiman, 2007; 이선영, 2004; 서미선, 2006; 탁수연 등, 2007; 이경선, 2009)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생생활은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학문을 접하면서 많은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 시기이므로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다양한 세부 전공영역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은 더욱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하나,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간의 연관성을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유형을 학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학업 및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유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제간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지지 유형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인천, 경기 및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 2곳과 2년제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보건행정학과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3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김명숙(1994)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김연희(1998)가 일부 수정 보완한 도구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구 지지 8문항, 부모 지지 8문항, 교수 지지 8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24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연희(199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하위 척도별 Cronbach's alpha 계수 .87, .92, .77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9이었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하혜숙(2000)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심은숙(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과만족 6문항, 관계만족 4문항, 일반만족 5문항, 인식만족 6문항으로 총 21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21점에서 1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심은숙(200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alpha 계수 .75, .71, .84, .87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9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인천, 경기 및 충남지역의 4년제 대학 2곳과 2년제 대학 2곳에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보건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설문 진행절차 및 소요시간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 3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응답 후 바로 회수하였다.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최종 38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

- 술하였다.
- 2) 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은 군집분석으로 확인하였다.
 - 3) 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 전체적으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35(±1.99)세로 20-24세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였고, 4년제 대학에서는 20-2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년제 대학에서는 19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이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54.5%) 없는 학생(45.5%)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출신고교는 인문계 고교졸업자가 대부분이었으나, 2년제 대학에서는 실업계 졸업자도 4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77.7%로 가장 높았고, 주관적인 학교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가 47.2%, 만족한다가 38.7%, 불만족한다가 14.1% 순이었고, 주관적인 학교성적상태는 중위권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 | (N=380) | | |
|--------|-----------|--------------|--------------------|--------------------|
| 일반적 특성 | 영역 | 전체 | 4년제 대학 | 2년제 전문대학 |
| | | 빈도(백분율) | (n=221) 빈도(백분율) | (n=159) 빈도(백분율) |
| 나이 | 19세 이하 | 150(39.5) | 40(18.1) | 110(69.2) |
| | 20-24세 | 208(54.7) | 161(72.9) | 47(29.6) |
| | 25-29세 | 22(5.8) | 20(9.0) | 2(1.3) |
| | 평균(표준편차) | 20.35(±1.99) | 21.17(±2.63) | 19.52(±1.35) |
| 성별 | 남학생 | 74(19.5) | 62(28.1) | 12(7.5) |
| | 여학생 | 306(80.5) | 159(71.9) | 147(92.5) |
| 종교 | 있음 | 207(54.5) | 125(56.6) | 82(51.6) |
| | 없음 | 173(45.5) | 96(43.4) | 77(48.4) |
| 출신고교 | 인문계 | 295(77.6) | 209(94.6) | 86(54.1) |
| | 실업계 | 77(20.3) | 9(4.1) | 68(42.8) |
| | 예체능계 및 기타 | 8(2.1) | 3(1.4) | 5(3.1) |

| 일반적 특성 | 영역 | 전체 | 4년제 대학 (n=221) | 2년제 전문대학 (n=159) |
|------------------|-------|-----------|-------------------|---------------------|
| | | 빈도(백분율) | 빈도(백분율) | 빈도(백분율) |
| 주관적인 경제상태 | 잘산다 | 44(11.8) | 29(13.3) | 15(9.7) |
| | 보통이다 | 290(77.7) | 169(77.5) | 121(78.1) |
| | 못산다 | 39(10.5) | 20(9.2) | 19(12.3) |
|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 만족이다 | 145(38.7) | 90(41.1) | 55(35.3) |
| | 보통이다 | 177(47.2) | 101(46.1) | 76(48.7) |
| | 불만족이다 | 53(14.1) | 28(12.8) | 25(16.0) |
| 주관적인 성적상태 | 상위권 | 39(10.4) | 33(15.1) | 6(3.9) |
| | 중위권 | 259(69.3) | 148(67.6) | 111(71.6) |
| | 하위권 | 76(20.3) | 38(17.4) | 38(24.5) |

2. 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

본 연구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비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집단수가 3개로 분류되었고, 각 집단별 사회

적 지지 평균값을 살펴보면, 집단1은 친구 지지 34.47점, 가족 지지 36.35점, 교수 지지 29.28점이며, 집단2는 친구 지지 33.01점, 가족 지지 35.64점, 교수 지지 22.49점이고, 집단3은 친구 지지 29.51점, 가족 지지 26.80점, 교수 지지 22.84점이었다.

<표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유형

(N=380)

| 구 분 | 전체 (n=380) | 집단1 (고 지지형) (n=114) | 집단2 (저 교수지지형) (n=138) | 집단3 (저 지지형) (n=128) |
|-------|---------------|---------------------------|-----------------------------|---------------------------|
| 친구 지지 | 32.27(±3.80) | 34.47(±2.85) | 33.01(±3.29) | 29.51(±3.40) |
| 가족 지지 | 32.88(±5.50) | 36.35(±3.43) | 35.64(±3.39) | 26.80(±3.34) |
| 교수 지지 | 24.65(±4.28) | 29.28(±2.91) | 22.49(±3.01) | 22.84(±3.14) |

집단별로 살펴보면, 집단1은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수 지지 평균값은 전체 대상자의 각 평균값과 비교할 때 모두 높았으며,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높은 사회적 지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집단2는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 평균값은 전체 대상자

의 각 평균값보다 높았으나 교수 지지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집단3의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수 지지 점수는 전체 대상자의 각 평균값보다 모두 낮았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에도 가장 낮은 사회적 지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집단1은 고 지지형으로, 집단2는 저 교수지지형으로, 집단3은 저 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별 수는 고 지지형은 114명(30.0%), 저 교수지지형은 138명(36.3%), 저 지지형은 128명(33.7%)이었다.

분류된 사회적 지지유형을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

학에 따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4년제 대학에서는 저 교수지지형이 가장 높아 35.7%이었으며, 고 지지형은 34.8%, 저 지지형은 29.4% 순이었고, 2년제 대학에서는 저 지지형이 가장 높아 39.6%, 저 교수지지형은 37.1%, 고 지지형은 23.3%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036, p=.030$).

<표 3> 학제별 사회적 지지유형

| (N=380) | | | | |
|----------|---------------|-------------------|-------------------|--------------|
| 사회적 지지유형 | 전체 빈도(백분율) | 4년제 대학 빈도(백분율) | 2년제 대학 빈도(백분율) | $\chi^2(p)$ |
| 고 지지형 | 114(30.0) | 77(34.8) | 37(23.3) | 7.036(.030)* |
| 저 교수지지형 | 138(36.3) | 79(35.7) | 59(37.1) | |
| 저 지지형 | 128(33.7) | 65(29.4) | 63(39.6) | |

3. 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본 연구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전공만족도 점수는 4년제 대학에서는 고 지지형이 76.11점, 저 교수지지형이 67.02점, 저 지지형은 68.44점으로 사회적 지지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9.023, p=.000$).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과만족($F=9.765, p=.000$), 관계만족($F=16.393, p=.000$), 일반

만족($F=15.067, p=.000$), 인식만족($F=9.274, p=.000$)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년제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 점수가 고 지지형이 70.59점, 저 교수지지형이 64.86점, 저 지지형이 64.63점으로 사회적 지지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970, p=.008$). 영역별로 살펴보면, 관계만족($F=3.617, p=.029$), 인식만족($F=5.849,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학제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 전공만족도 | 4년제 | | | F(p) |
|-------|-------------------|---------------------|-------------------|--------------|
| | 고 지지형 (n = 77) | 저 교수지지형 (n = 79) | 저 지지형 (n = 65) | |
| 전체 | 76.11(9.36) | 67.02(10.21) | 68.44(9.78) | 19.023(.000) |
| 교과만족 | 21.88(2.96) | 19.87(3.09) | 20.29(2.82) | 9.765(.000) |
| 관계만족 | 13.24(2.18) | 11.16(2.58) | 11.76(2.14) | 16.393(.000) |
| 일반만족 | 18.97(2.83) | 16.44(3.30) | 16.70(3.21) | 15.067(.000) |
| 인식만족 | 22.01(3.55) | 19.54(4.11) | 19.67(4.22) | 9.274(.000) |

| 전공만족도 | 2년제 | | | F(p) |
|-------|-----------------|-------------------|-----------------|-------------|
| | 고 지지형 (n=37) | 저 교수지지형 (n=59) | 저 지지형 (n=63) | |
| 전체 | 70.59(8.66) | 64.86(10.78) | 64.63(9.69) | 4.970(.008) |
| 교과만족 | 19.91(3.26) | 19.08(3.31) | 18.85(2.92) | 1.371(.257) |
| 관계만족 | 12.91(2.37) | 11.61(2.36) | 11.84(2.45) | 3.617(.029) |
| 일반만족 | 17.16(2.82) | 15.79(3.18) | 16.00(2.93) | 2.568(.080) |
| 인식만족 | 20.59(3.04) | 18.37(4.31) | 17.93(3.87) | 5.849(.004) |

4. 대상자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학제간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4년제 대학에서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r=-.303, p=.000$), 하위 영역에서 모두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년제 대학에서 전공만족도는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208, p=.009$), 하위 영역에서는 인식만족($r=-.242, p=.002$)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학제별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 구분 | (N=380) | | | | |
|--------|---------------|---------------|---------------|---------------|---------------|
| | 전체 전공만족도 | 교과만족 | 관계만족 | 일반만족 | 인식만족 |
| 4년제 대학 | -.303(.000)** | -.216(.001)** | -.252(.000)** | -.284(.000)** | -.235(.000)** |
| 2년제 대학 | -.208(.009)** | -.123(.122) | -.147(.064) | -.129(.106) | -.242(.002)** |

** $p < 0.01$

사회적 지지유형별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고 지지그룹은 전공만족도($r=.346,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에서 모두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사회적 지지유형별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 구분 | (N=380) | | | | |
|---------|---------------|--------------|---------------|---------------|---------------|
| | 전체 전공만족도 | 교과만족 | 관계만족 | 일반만족 | 인식만족 |
| 고 지지형 | .346(.000)** | .241(.000)** | .292(.000)** | .300(.000)** | .290(.000)** |
| 저 교수지지형 | -.187(.000)** | -.125(.015)* | -.211(.000)** | -.170(.001)** | -.124(.016)* |
| 저 지지형 | -.145(.005)** | -.107(.037)* | -.069(.181) | -.118(.021)* | -.155(.002)** |

* $p < 0.05$, ** $p < 0.01$

저 교수지지그룹은 전공만족도($r=-.187,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에서 모두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 지지그룹은 전공만족도($r=-.145,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교과만족($r=-.107, p=.037$), 일반만족($r=-.118, p=.021$), 인식만족($r=-.155, p=.002$) 3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유형은 학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년제 대학은 저 교수지지형이 가장 높았으며, 2년제 대학은 저 지지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유형은 전반적으로 가족과 친구 지지가 높았고, 특히 저 교수지지형은 친구 지지가 가장 높은 반면 교수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교수보다는 친구로부터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교수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상호간의 의사소통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에 비해 교수를 의미 있는 타인으로 염두에 두지 않으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전달 및 확산 등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전체적으로 가족을 가장 의미 있는 타인으로 여기며, 그 어떤 지지보다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현일과 김기원, 2001; Brissette

et al, 2002; 이선영, 2004; 서미선, 2006; 이경선, 2009). 부모 및 친구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이 확립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추구욕구도 높고(이경선, 2009), 전공몰입이나 전공만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서미선, 2006)는 본 연구의 지지유형에 따른 지지원인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에서는 4년제, 2년제 모두 고 지지형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고, 학업성취도도 양호함(옥경희, 2001; Clifton et al, 2004; Heiman, 2007; 전소연, 2010)을 알 수 있다. 한편, 4년제 대학은 저 교수지지형이 전공과 관련된 하위영역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년제는 저 지지형이 전공과 관련된 하위영역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제간의 차이를 보였다. 4년제의 경우 교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저하되어 있고, 2년제의 경우 부모, 친구, 교수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저하되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날 경우 전공만족도도 저하되어, 학업성취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고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는 전공이 학생의 적성에 잘 맞지 않거나, 지각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학생활에서 학생과 교수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만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교수와 학생간에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전담교수를 배치하거나, 각각의 세부 전공별로 소그룹을 형성하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수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제

도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는 하위영역별에서 전체적으로 교과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인식만족이었다. 하나, 이동재(2004)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영역에선 교과만족(35.2%)이 가장 낮아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와 이동재(2004)연구는 전공분야와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인식만족(74.99%)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유형별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 지지형은 모든 하위그룹에서 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저 교수지지형은 모든 하위그룹에서 역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저 지지형은 교과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만 역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처럼,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가장 사회적 지지가 높은 고 지지형은 전공만족도도 높았고(옥경희, 2001; Clifton et al, 2004; 서미선, 2006; Heiman, 2007; 전소연, 2010), 그렇지 않은 두 유형은 상대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이 가능하다(Lent et al, 2000; 이동재, 2004).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는 주변인들의 관심과 유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전공교과와 전공일반, 전공인식 등의 만족도가 향상됨은 물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도 더불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학생들 개개인을 둘러싼 학과의 환경개선, 하나의 사회적 지지원이 될 수 있는 교내 활동(노혜련 등, 2005), 학생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김지은, 2005) 등이 사회적 지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수의 태도 변화이다. 학생들에게 권위적이기 보다는 좀 더 친근감 있는 접근과 상담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수 지지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원 중 교수 지지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각각의 세부전공별 학년별 전담교수를 두고 전공학습동아리 활동 및 개별 면담이 요구된다. 이는 학생과의 거리를 좁히고, 친근감을 쌓을 수 있어 교수 지지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교수 지지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인천, 경기 및 충남지역 4년제 대학 2곳과 2년제 대학 2곳의 보건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38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유형을 분류하고, 학제간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유형을 고 지지형, 저 교수지지형, 저 지지형으로 구분하였고, 빈도 분포는 저 교수지지유형, 저 지지형, 고 지지형 순이었다. 지지유형의 세부영역에서 전체적으로 가족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 지지형과 저 교수지지형은 가족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 지지형은 친구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4년제 대학은 고지지형, 저 지지형, 저 교수지지형 순이었고, 2년제 대학은 고지지형, 저 교수지지형, 저 지지형 순이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유형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학제별 전공만족도는 모두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4년제 대학은 전공만족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2년제 대학은 인식만족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유형별로는 고 지지형과 전공만족도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순 상관관계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저 교수지지형은 전공만족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저 지지형은 전공만족도 하위영역 중 교과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에서만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은 의미 있는 주변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행정전공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전공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동료 및 교수와의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

둘째, 학과 동료와의 학습교류, 학과 환경 개선, 교수와의 체계적인 전공 및 진로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학과 및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보건행정학의 다양한 세부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특강 및 현장실습의 내실화 등도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되므로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일부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전체 대학생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표집하지 못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요구도, 교과과정 및 학제에 따른 차이점을 먼저 확인하고,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지유형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지원 중 부모, 친구, 교수 이외에도 형제자매, 친지, 소속된 집단, 사회, 매스 미디어 등 다양한 의미 있는 주변인과 환경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김명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박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94.
2. 김연희.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3. 김지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2006; 12(1):53-78.
4. 노미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5. 노혜련, 최경일, 김요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05;8:30-61.
6. 박헌일, 김기원.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계명문화대학 계명연구논총, 2001;19(1):7-23.
7. 서미선.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물리적 지원이 전공몰입 및 전공 만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8. 심은숙.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전공학과 만족도 및 학과인기도에 따른 진로성숙수준의 차이 분석[석사학위논문]. 강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9. 옥경희.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 *학생생활연구* 2001;8:21-39.
10. 이경선.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1. 이동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적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2. 이선영.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13. 장연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14. 전소연.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 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0;11(1):93-115.
15. 조일휘, 김선희, 권순미, 김정희, 최원희. 사회 복지 실천론. 서현사, 2008.
16. 진은아.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7.
17.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분석. *아동교육* 2007;16(1): 143-154.
18.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19. 한수현.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20. Barrera, M.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H. Go'ttlieb (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CA Sage, 1996.
21. Brissette, I., Scheier, M.F., & Carver, C.S.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2; 82:102-111.
22. Chapman, J.A., Denholm, C., Wyld, C. Social support as a factor inhibiting teenage risk-taking: views of students, parents and professionals. *Journal of Youth Studies* 2008; 11(6):611-627.
23. Clifton RA, Perry RP, Stubbs CA, Roberts LW. Faculty environments, psychosocial disposition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004;45(8):801-828.
24. Heiman T. Social support networks, stress,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ucces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007;9(4): 461-478.
25. Lent, R.W., Brown, S.T., & Hackett, G.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00;47:36-49.